

[사회]

공원 빼앗은 '공룡마트'

해법은 자체 주차장 확보 뿐

- ① 시민 주차장 독식, 빼앗긴 삶의 질
- ② 상권의 블랙홀...영세 상권 초토화
- ③ 지역자금 유출, 고용효과 무색
- ④ 허가내 준 광주시, 대책은 없나

매장면적 9천 평, 하루 평균 쇼핑객 2만 명에 이르는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할인점인 롯데마트 월드킥경기장(이하 롯데마트)의 주차장은 549면에 불과하다. 롯데마트는 건물 신축시 지하에 마련한 332면과 마트 정문 옆에 위치한 월드킥경기장 주차장(B-2)을 임대한 217면 등 총 549면의 주차면적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건축허가의 사전단계인 교통영향평가에서 롯데마트가 법정주차장 외에 월드킥경기장 내부 주차장(2천851면)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통과시켰다. 법정 주차면적이 509면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했다. 월드킥경기장의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통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규모가 절반 정도인 신세계 이마트가 법정면적의 2배인 1천400면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보듯,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주변 교통 문제와 고객 확보를 위해 법정주차면적의 2~3배 가량을 확보하는 것이 상례다. 이 같은 자체 주차장 부족과 체육공원시설을 이용토록 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개업 첫날부터 롯데마

트 일대는 '차산차해(車山車海)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연일 쇼핑객들이 몰고 온 차량이 월드킥경기장 주차장을 대부분 차지한 것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도 극심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월드킥경기장에서 프로축구가 열리거나 전국체전이 개최될 경우다. 현 상황을 고려한 산술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전국체전 행사에는 마트 영업을 중단해야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광주시가 롯데마트로부터 연간 45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임대료를 받는 경영실적은 높지 않을 만 하지만 주차장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진입로로 조정하고 있다. 전국체

영터리 교통영향 평가 '눈가림 합법' 인근 7천여평 새 주차장 개설해야

전 등 대형행사에서는 주차장을 발행, 행사 관련 이외의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마트 자체 주차장이 아닌 월드킥경기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쇼핑객과 방문객들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유료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근의 비포장 구역 7천400평(주차 대수 940대)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쇼핑객 수가 1만5천 명을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마트 자체 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지하에 주차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옥상 주차장도 개설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사압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민 불편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 불편하면,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 **〈글〉** /채희중기자 chaeh@kwangju.co.kr



모델하우스 철거 이래서야...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유동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에서 인부들이 건축 자재 등을 불로 태우고 있다. 철거된 건축 폐기물은 원 칩상 처리업체로 옮겨져 처리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1일 시작된 모델하우스 철거는 K환경 산업이 맡고 있으며, 오는 15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시내버스 노선 잘 보세요"

광주 오늘부터 26개 노선 조정

광주시 시내버스 '26개 노선 조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1일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지 48일 만에 2개 노선 신설·13개 노선 연장·7개 노선 조정 등을 통해 환승 및 통학불편·도심 상권 위축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문흥 48번'을 신설해 웅봉·문흥·매곡·봉선·화정지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개선했다. 또 '진월 17번'은 금호·풍암지구에서 진월 학군으로 연장하고, '금남 55번'은 두암·충효동과 동강대·충효동·조천대 학군을 이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일곡 28번'·'침단 30번'·'지인 35번'·'침단 95번' 등도 진월·쌍촌·화정·염주·각화·양산 지구 등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로를 조정했다.

시는 또 '금호 36번'을 신설한 것을 비롯해 '지인 51번'·'금남 55번'·'금남 59번'·'송정98번'·'송암74번'·'풍암61번' 등의 경로를 연장하거나 통합해 각화·두암·쌍촌·하남·월곡·양산·연제지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의 도심 나들이를 돕도록 했다.

조정된 노선은 시 대중교통 홈페이지(http://bus.gjcity.net)와 노선안내센터(613-5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양동시장은 8개 노선이 늘어난 18개 노선 버스가 경유하고, 대인·말바루·남광주시장 등 다른 재래시장 노선도 늘었다. 금남로·충장로 등 도심 상권에는 5개 노선을 추가 투입해 25개 노선이 경유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봄이 오는 소리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10~30mm의 비가 내린다.

2월 8일
(음 12월 21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면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3.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면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5:49 썰물 < 10:57
17:52 썰물 < 23:13
여수 밀물 < 00:10 썰물 < 06:04
18:22

▲해돋이 07:26 ▲해진 18:07 ▲달출 23:48 ▲달몰 10:07

◇주긴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씨						
최저/최고	5/10	1/9	-3/8	-2/9	2/8	3/8

졸업생 전원 賞주고 '선생님 밴드' 추가 30~70대 학생 620명 '뜻깊은 졸업'도

광주·전남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졸업식을 갖는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는 졸업식, 대표 학생이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고, 성적 우수자는 다시 호명돼 상장을 받는 관에 박힌 졸업식에서 벗어나려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광주 학문초등학교는 졸업생 전원에게 '봉사상' '음악상' '효행상' 등을 준다. 학생들이 상을 받는 동안 수상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담은 동영상도 빈 프로젝트를 쏠아 보여준다. 또 롤러블레이드를 탄 5학년 후배들이 음악에 맞춰 불꽃을 흔들며 선배의 가는 길을 축하해준다.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역시 '특기인장상' '술선수범상' '착한 마음상' '바른예절상' 등 모든 졸업생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졸업가 연주는 재학생들로 이뤄진 교내 관현악단이 맡는다. 비아초등학교는 학생 개인기의 프로젝트를 영상에 담아 선보이고, 무등초등학교는 졸업식 때 5학년들이 직접 쓴 쪽지 형식의 편지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한다. 살레시오고등학교는 졸업생들이 일일이 호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어 동문 선배들이 이뤄진 그룹사운드와 교사들로 이뤄진 팀이 각각 축가를 부른다. 6일 졸업식을 마친 서석고등학교는 개별 호명하는 것 대신 교장이 졸업생 전원과 악수를 했다. 졸업생 자체가 특별한 학교도 있다. 목포 제일정보고등학교는 정규 학교를 마치지 못한 30~70대 학생들이 졸업한다. 중학교 과정 260명을 포함한 졸업생 620명은 일반적인 학교의 졸업식 장면과 달리 자녀들에게 축하를 받게 된다. 중등과정 대한학교인 영광 성지승화중학교는 졸업생 19명의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교장이 전체 졸업생의 3년간의 성장 과정에 대해 학부모 및 참석자들에게 설명한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학교생활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호남삼육중·고등학교는 중학생 80여 명, 고등학생 100여 명이 동시에 졸업식을 하게 된다. 졸업생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오늘 최고 30mm 비... 곳곳 천둥·번개

순천 어제 21.2도
중국 화중지방(華中地方)에 위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면서 광주·전남에 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내륙에는 10~20mm, 해안에는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천둥·번개가 함께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번 비로 7일과 같은 가시거리(可視距離) 100m 미만의 짙은 안개는 어느 정도 걷히겠지만, 일시적인 증발 현상으로 오전 한 때 안개가 끼는 곳도 있었다. 기상청은 "기압골이 내륙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8일 밤 늦게 좀 비가 그친다"고 예보했다. 한편 7일 낮 기온은 광주 17.2도, 순천 21.2도 등 얼얼하게 높았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등록률 전남대 84%·조선대 82%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이 6일 2007년 대학입시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부분 80~90%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전남대는 5천112명 중 4천304명(84.2%)이 등록해 지난해 83.1%보다 1.1%포인트 올랐다. 광주캠퍼스는 83.8%로 지난해 84.5%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여수캠퍼스는 85.8%로 지난해 77.4%보다 8.4%포인트 상승했다. 조선대는 5천120명 가운데 4천210명(82.2%)이 등록해 지난해 80%보다 2.2%포인트 올랐다. 호남대는 1천888명 중 1천633명이 등록, 86.5%의 등록률을 보였다. 광주대는 1천950명 가운데 1천639명(84.1%)이, 남부대는 829명 중 679명(82%)이 등록했다. 광주여대는 1천10명 중 930명(92.1%)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교대는 498명 가운데 349명(70%)이 등록했다. 동신대는 1천720명 중 1천680명(97%)인 930명이 등록해 지난해 81%에 비해 16%포인트나 상승했다. 순천대는 2천23명 가운데 1천555명(76.9%)이 등록해 지난해 73%보다 3%포인트 올랐다. 목포대는 1천919명 중 1천452명(75.7%)이 등록했다. 각 대학은 미등록 인원과 다른 대학 등록을 인한 등록금 환불 인원을 채우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추가 등록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17~28일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자연에서 얻은 건강식품

Biorhys Korea가 선보입니다

대사활 모란

제일 생리에서 탄생하다

Biorhys Asia (062)531-3377, 3399

문주점 062533-3399 | 순천점 061184-8700 | 화주점 0621-0303

SELF WINE

나만의 취향, 나만의 맛

나만의 취향, 나만의 맛

나만의 취향, 나만의 맛

나만의 취향, 나만의 맛